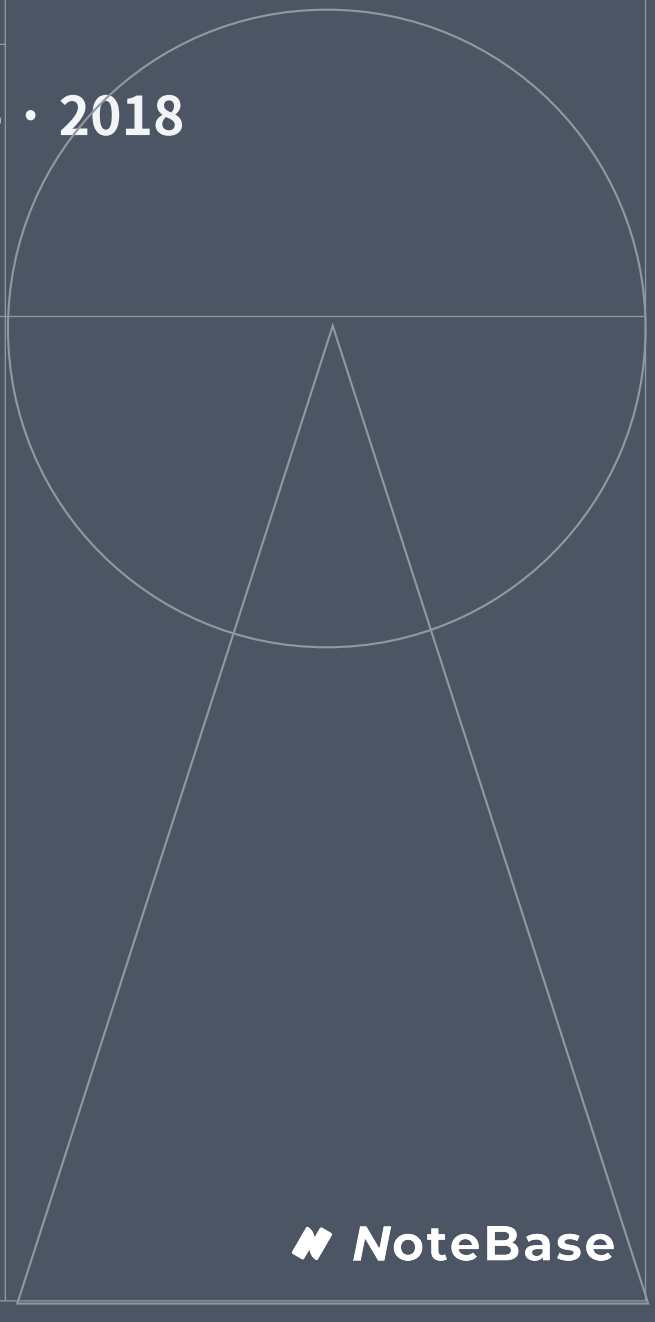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18

전문직/노무사 · 경제학원론 · 2018

문 101.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호황기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지 않지만 불황기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할 때 종전보다 소비가 줄어든다.

②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소비는 일생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한계저축성향과 평균저축성향의 합은 언제나 1이다.

④ 케인즈의 소비함수에서는 소비가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⑤ 절대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비는 현재의 처분가능소득으로 결정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항상소득가설·생애주기가설·절대소득가설이 소비를 결정하는 소득을 어떻게 보는지와 저축성향 사이의 관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대소득가설은 현재의 처분가능소득이 현재 소비를 결정한다고 본다. 항상소득가설은 일시적 소득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상소득을 중심으로 소비가 결정된다고 본다. 생애주기가설은 일생에 걸친 소득과 보유 자산을 고려하여 소비를 배분한다고 본다.
소득 중 소비하지 않은 몫이 저축이므로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의 합은 1이고, 평균소비성향과 평균저축성향의 합도 1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불황기의 일시적 소득 감소에는 소비가 줄어든다고 한 부분이다. 항상소득가설에서는 호황기의 일시적 소득 증가와 불황기의 일시적 소득 감소가 모두 항상소득을 크게 바꾸지 않으므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② X — 틀린 표현은 '일생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이다. 생애주기가설에서는 일생에 걸쳐 예상되는 소득과 보유 자산을 고려하여 소비를 결정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한계저축성향과 평균저축성향의 합'이다. 합이 1이 되는 것은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 또는 평균소비성향과 평균저축성향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이다.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에 따른 소비함수에서는 현재의 처분가능소득이 현재 소비의 주된 결정 요인이다.
⑤ O — 절대소득가설은 소비가 현재의 처분가능소득에 의존한다고 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①은 일시적 소득 변화에 대한 반응을 호황과 불황에서 비대칭적으로 서술한 것이 함정이다. ③은 '한계'와 '평균'을 서로 다른 층위에서 더했고, ④는 항상소득가설이나 생애주기가설의 미래지향적 관점을 케인즈의 소비함수와 뒤섞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비의 기준이 현재 처분가능소득이면 절대소득가설, 장기적으로 지속될 소득이면 항상소득가설, 일생 전체의 소득과 자산이면 생애주기가설로 판단한다. 소비성향과 저축성향은 같은 층위끼리 짝지어 한계와 한계, 평균과 평균의 합이 1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는 현재, 항상은 장기, 생애는 평생이다. 한계소비성향과 한계저축성향의 합은 1이고, 평균소비성향과 평균저축성향의 합도 1이다.

NoteBase

문 102. 국민소득 관련 방정식은 $Y = C + I + G + NX$, $Y = C + S + T$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국민저축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NX는 순수출, X는 수출, M은 수입, S는 민간저축, T는 세금이다.)

C : 8,000 I : 2,000 G : 2,000
X : 5,000 M : 4,000 T : 1,000

① 2,200
② 2,500
③ 2,800
④ 3,000
⑤ 4,000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국민소득 항등식으로 국민소득을 구한 뒤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합하여 국민저축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은 소비 8,000, 투자 2,000, 정부지출 2,000, 수출 5,000, 수입 4,000, 세금 1,000이다.
순수출은 $NX = X - M = 5{,}000 - 4{,}000 = 1{,}000$이다.
구해야 할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의 합이다.

사용할 공식

$Y = C + I + G + NX$
$S = Y - C - T$
국민저축=S+(T-G)=Y-C-G
국민저축에는 민간저축뿐 아니라 정부저축도 포함되므로 $S + (T - G)$를 사용한다. 또한 개방경제에서는 국민저축이 $I + NX$와 같으므로 계산 결과를 검산할 수 있다.

계산 과정

1. 국민소득은 $Y = 8{,}000 + 2{,}000 + 2{,}000 + 1{,}000 = 13{,}000$이다.
2. 민간저축은 $S = 13{,}000 - 8{,}000 - 1{,}000 = 4{,}000$이다.
3. 정부저축은 $T - G = 1{,}000 - 2{,}000 = -1{,}000$이다.
4. 국민저축은 $4{,}000 + (-1{,}000) = 3{,}000$이다.

검산하면 $I + NX = 2{,}000 + 1{,}000 = 3{,}000$으로 같은 값이 나온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2,200은 계산된 국민저축 3,000과 다르다. 틀린 값 2,200은 3,000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 2,500은 계산된 국민저축 3,000과 다르다. 틀린 값 2,500은 3,000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 2,800은 계산된 국민저축 3,000과 다르다. 틀린 값 2,800은 3,000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국민저축은 $Y - C - G = 13{,}000 - 8{,}000 - 2{,}000 = 3{,}000$이다.
⑤ X — 4,000은 국민저축이 아니라 민간저축 $S = Y - C - T$이다. 정부저축 -1,000을 합산하면 국민저축은 3,000이다.

오답 포인트

⑤의 4,000은 민간저축만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국민저축을 구할 때는 정부의 재정적자 $T - G = -1{,}000$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순수출은 수출과 수입의 합이 아니라 $X - M$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NX = X - M$을 계산하고 국민소득 항등식으로 Y를 구한 다음, $Y - C - G$ 또는 $I + NX$로 국민저축을 계산한다. 두 식의 결과가 같은지 확인하면 부호와 항목 누락을 검산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개방경제의 국민저축은 $S + (T - G) = Y - C - G = I + NX$이다.

NoteBase

문 103. 화폐발행이득(seignior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가 화폐공급량 증가를 통해 얻게되는 추가적 재정수입을 가리킨다.
ㄴ. 화폐라는 세원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와 같다는 뜻에서 인플레이션 조세라 부른다.
ㄷ. 화폐공급량 증가로 인해 생긴 인플레이션이 민간이 보유하는 화폐자산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리는 데서 나온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화폐발행이득의 의미와 정부가 화폐공급을 늘릴 때 민간의 실질화폐잔고에서 정부로 실질 자원이 이전되는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화폐발행이득은 정부가 화폐공급량을 늘려 확보하는 추가적인 실질 재정수입이다.
ㄱ: 정부가 새 화폐로 지출할 수 있으므로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한다.
ㄴ: 별도의 세금을 직접 걷지 않아도 민간의 실질화폐잔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른다.
ㄷ: 화폐공급 증가가 물가상승을 일으키면 민간이 보유한 화폐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그만큼 정부가 실질 자원을 확보한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옳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과 ㄷ도 옳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ㄱ’이 아니라 ‘ㄱ, ㄴ, ㄷ’이 올바른 조합이다.

② X
ㄴ은 옳지만 ㄱ과 ㄷ도 옳으므로 불완전한 조합이다. ‘ㄴ’이 아니라 ‘ㄱ, ㄴ, ㄷ’이 올바른 조합이다.

③ X
ㄱ과 ㄷ은 옳지만 ㄴ도 옳다. ‘ㄱ, ㄷ’이 아니라 ‘ㄱ, ㄴ, ㄷ’이 올바른 조합이다.

④ X
ㄴ과 ㄷ은 옳지만 ㄱ도 옳다. ‘ㄴ, ㄷ’이 아니라 ‘ㄱ, ㄴ, ㄷ’이 올바른 조합이다.

⑤ O
ㄱ은 추가 재정수입이라는 정의, ㄴ은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성격, ㄷ은 민간 화폐자산의 실질가치 하락이라는 발생 원리를 각각 정확히 설명하므로 모두 옳다.

오답 포인트

ㄴ의 ‘조세’가 명시적인 세금 부과를 뜻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인플레이션 조세는 세법에 따라 직접 징수하는 조세가 아니라, 물가상승으로 민간의 실질화폐잔고가 감소하는 효과를 조세에 비유한 표현이다. 따라서 ㄴ을 제외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화폐발행이득 문제에서는 ‘정부의 화폐공급 증가 → 물가상승 → 민간 실질화폐잔고 감소 → 정부의 실질 재정수입’이라는 연결을 확인한다. 이 연결의 정의·조세적 성격·발생 원리를 설명한 문장은 모두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서술한 것이다.

암기 포인트

화폐발행이득은 정부의 발행수입이고, 민간의 관점에서는 실질화폐잔고를 줄이는 인플레이션 조세이다.

NoteBase

문 104. 표는 A국 노동자와 B국 노동자가 각각 동일한 기간에 생산할 수 있는 쌀과 옷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리카도의 비교우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다.)

구 분	A국	B국
쌀(섬)	5	4
옷(벌)	5	2

① 쌀과 옷 생산 모두 A국의 노동생산성이 B국보다 더 크다.

② A국은 쌀을 수출하고 옷을 수입한다.

③ A국의 쌀 1섬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1벌이다.

④ B국의 옷 1벌 생산의 기회비용은 쌀 2섬이다.

⑤ B국의 쌀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보다 작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같은 기간의 생산량으로 각 재화의 기회비용을 계산하여 절대우위와 비교우위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A국은 쌀 5섬 또는 옷 5벌, B국은 쌀 4섬 또는 옷 2벌을 같은 기간에 생산한다.
구해야 할 값: 각국의 쌀과 옷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및 비교우위 재화이다.
주의할 조건: 생산량이 큰 국가는 절대우위를 가지지만, 수출 재화는 기회비용이 더 작은 비교우위로 결정된다.

사용할 공식

쌀 1섬의 기회비용은 (옷의 최대 생산량)/(쌀의 최대 생산량)벌이고, 옷 1벌의 기회비용은 (쌀의 최대 생산량)/(옷의 최대 생산량)섬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같은 노동으로 한 재화를 더 생산하려면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 기회비용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A국: 쌀 1섬의 기회비용은 $\frac{5}{5}=1$벌, 옷 1벌의 기회비용은 $\frac{5}{5}=1$섬이다.
2. B국: 쌀 1섬의 기회비용은 $\frac{2}{4}=\frac{1}{2}$벌, 옷 1벌의 기회비용은 $\frac{4}{2}=2$섬이다.
3. 쌀은 기회비용이 더 작은 B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옷은 기회비용이 더 작은 A국이 비교우위를 가진다.

따라서 A국은 옷을 수출하고 쌀을 수입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O — 같은 기간에 A국은 쌀 5섬과 옷 5벌을 생산할 수 있고 B국은 각각 4섬과 2벌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두 재화 모두 A국의 노동생산성이 더 크다.
② X — A국은 쌀이 아니라 옷에 비교우위가 있다. 틀린 표현인 ‘A국은 쌀을 수출하고 옷을 수입한다’는 ‘A국은 옷을 수출하고 쌀을 수입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O — A국은 같은 노동으로 쌀 5섬 또는 옷 5벌을 생산하므로 쌀 1섬의 기회비용은 옷 $\frac{5}{5}=1$벌이다.
④ O — B국은 같은 노동으로 쌀 4섬 또는 옷 2벌을 생산하므로 옷 1벌의 기회비용은 쌀 $\frac{4}{2}=2$섬이다.
⑤ O — 쌀 1섬의 기회비용은 B국이 옷 $\frac{1}{2}$벌, A국이 옷 1벌이므로 B국이 더 작다.

오답 포인트

②는 모든 재화의 생산량이 더 많은 A국이 쌀도 수출할 것처럼 보이게 만든 선지이다. 생산량의 절대적 크기는 절대우위를 나타내고, 무역 방향은 상대적 기회비용인 비교우위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같은 기간의 생산량 표에서는 먼저 각 재화 1단위의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재화의 생산량 ÷ 선택한 재화의 생산량’으로 계산한 뒤, 기회비용이 더 작은 국가를 비교우위 국가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절대우위는 생산량, 비교우위는 기회비용이다. 수출은 비교우위 재화가 담당한다.

NoteBase

문 105.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조세징수보다 국채발행이 더 효과적인 재원조달방식이다.

②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민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③ 조세감면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④ 조세감면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민간의 저축이 감소한다.

⑤ 재원조달방식의 중립성이 성립되지 않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리카도 대등정리에서 조세와 국채 중 어떤 방식으로 정부지출을 조달하더라도 민간의 소비, 국민저축, 이자율 등 실질경제변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재원조달의 중립성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리카도 대등정리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가계가 현재의 국채발행을 미래의 조세부담으로 인식한다는 이론이다. 조세감면으로 가처분소득이 늘어도 가계는 미래의 세금에 대비해 그만큼 더 저축하므로 소비는 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가치와 미래 조세부담의 현재가치가 상쇄되어 국채는 민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국채발행이 더 효과적인 재원조달방식'이다.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조세징수와 국채발행의 실질효과가 같으므로 어느 한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다.

② O
정부의 국채발행은 가계가 부담할 미래 조세의 현재가치를 같은 만큼 증가시킨다. 국채라는 자산과 미래 조세부담이 상쇄되므로 민간의 순자산은 증가하지 않는다.

③ X
틀린 표현은 '이자율이 상승한다'이다. 조세감면분만큼 민간저축이 증가하여 정부저축 감소를 상쇄하므로 국민저축과 자금공급이 변하지 않고 이자율도 상승하지 않는다.

④ X
틀린 표현은 '민간의 저축이 감소한다'이다. 가계는 국채 상환을 위한 미래 조세부담에 대비하므로 조세감면분만큼 민간저축을 증가시킨다.

⑤ X
틀린 표현은 '재원조달방식의 중립성이 성립되지 않아'이다. 리카도 대등정리가 성립하면 재원조달방식의 중립성이 성립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도 없다.

오답 포인트

현재의 조세감면만 보고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늘어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정리에서는 가계가 국채발행을 미래 조세의 증가로 인식하므로 현재의 조세감면분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 특히 ④의 '민간저축 감소'는 정부저축의 감소와 혼동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채발행으로 현재 조세가 줄어든 금액과 미래 조세부담의 현재가치를 대응시킨다. 두 값이 상쇄되면 소비는 불변이고 민간저축은 증가하며, 정부저축 감소가 상쇄되어 국민저축과 이자율도 불변이라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국채는 순자산이 아니다. 현재의 감세는 미래의 증세이고, 감세분만큼 민간저축이 증가한다.

NoteBase

문 106. 통화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통화승수는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커진다.

② 통화승수는 이자율 상승으로 요구불예금이 증가하면 작아진다.

③ 통화승수는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기업들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할수록 작아진다.

④ 통화승수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작아진다.

⑤ 화폐공급에 내생성이 없다면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통화승수가 현금보유성향, 법정지급준비율, 초과지급준비율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화승수는 본원통화 1단위가 만들어 내는 통화량의 배수이다.
현금·예금비율을 c, 법정지급준비율을 r, 초과지급준비율을 e라고 하면 통화승수는 일반적으로 $m = (1 + c)/(c + r + e)$로 나타낸다.
법정지급준비율이나 초과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신용창조가 줄어 통화승수가 작아지고, 사람들이 예금보다 현금을 더 선호해도 통화승수가 작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 법정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 예금통화 창출이 확대되므로 통화승수가 커진다.
② X — 틀린 표현은 요구불예금이 증가하면 통화승수가 "작아진다"는 부분이다. 이자율 상승으로 현금보다 요구불예금 보유가 늘어나면 현금·예금비율이 낮아지므로 통화승수는 커진다.
③ O — 대출받은 개인과 기업이 예금 대신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면 현금·예금비율이 높아지고 은행으로 환류되는 자금이 줄어 통화승수가 작아진다.
④ O — 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보유하면 대출과 예금통화 창출에 쓰이는 자금이 줄어 통화승수가 작아진다.
⑤ O — 화폐공급이 이자율 변화에 반응하지 않고 외생적으로 결정된다면 주어진 화폐공급량이 이자율과 무관하게 일정하므로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선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요구불예금 증가를 지급준비금 증가와 혼동하게 만든다. 민간이 현금 대신 요구불예금을 더 보유하는 것은 은행 내부의 지급준비율 상승이 아니라 현금·예금비율 하락이므로 통화승수를 키우는 방향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법정지급준비율 상승, 초과지급준비율 상승, 현금보유성향 상승은 모두 은행의 연속적인 예금통화 창출을 약화하므로 통화승수를 낮춘다. 반대로 이 세 비율이 낮아지는 변화는 통화승수를 높인다.

암기 포인트

현금·법정준비·초과준비 비율이 올라가면 통화승수는 내려간다.

NoteBase

문 107.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셔가설은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물가상승률'이라는 명제로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금융거래에 미리 반영됨을 의미한다.

② 새케인즈학파에 의하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③ 실제 물가상승률이 예상된 물가상승률보다 더 큰 경우, 채권자는 이득을 보고 채무자는 손해를 본다.

④ 실제 물가상승률이 예상된 물가상승률보다 더 큰 경우, 고정된 명목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관계에서 노동자는 이득을 보고 기업은 손해를 보게 된다.

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발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장기계약이 활성화되고 단기계약이 위축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예상 인플레이션이 명목변수에 반영되는 방식과 예상 밖 인플레이션이 채권자·채무자, 노동자·기업 및 계약기간에 미치는 재분배 효과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피셔가설: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대부자가 실질수익률을 보전하도록 명목이자율도 높아진다는 관계이다. 근사식은 $i = r + \pi^e$이다.
예상 인플레이션: 경제주체가 계약할 때 미리 내다본 물가상승률로, 명목이자율·명목임금 등 계약조건에 반영될 수 있다.
예상 밖 인플레이션: 실제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벗어난 부분으로, 고정된 명목금액의 실질가치를 바꾸어 채권자와 채무자 등 경제주체 사이에 부를 재분배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피셔가설에 따르면 예상 물가상승률은 금융계약의 명목이자율에 미리 반영된다. 근사적으로 명목이자율은 실질이자율과 예상 물가상승률의 합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어떤 형태의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이다. 예상된 인플레이션도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한 구두창 비용, 가격을 자주 조정하는 메뉴 비용, 조세 왜곡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③ X — 틀린 표현은 "채권자는 이득을 보고 채무자는 손해를 본다"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으면 상환받는 명목금액의 실질가치가 낮아지므로 채권자는 손해를 보고 채무자는 이득을 본다.
④ X — 틀린 표현은 "노동자는 이득을 보고 기업은 손해를 보게 된다"이다. 명목임금이 고정된 상태에서 예상 밖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므로 노동자는 손해를 보고 기업은 이득을 본다.
⑤ X — 틀린 표현은 "장기계약이 활성화되고 단기계약이 위축된다"이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장기간 고정된 명목조건을 유지할 위험이 커지므로 장기계약은 위축되고 단기계약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과 ④는 예상 밖 인플레이션으로 고정된 명목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때 누가 지급하고 누가 받는지를 뒤집어 놓았다. ⑤는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장기간 조건을 고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반대로 제시하였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었는지 확인한다. 예상되었다면 명목이자율 등 계약조건에 반영되는 피셔효과와 잔존 비용을 판단한다. 예상 밖 인플레이션이라면 고정된 명목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그 금액을 지급하는 쪽이 유리하고 받는 쪽이 불리하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예상 인플레이션은 명목이자율에 반영되고, 예상 밖 인플레이션은 채무자·기업에 유리하며 채권자·고정 명목임금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계약기간은 짧아진다.

NoteBase

문 108.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재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자재 혹은 자본재 등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두 물가지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다.

③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 상품의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④ 물가수준 그 자체가 높다는 것과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⑤ 물가지수를 구할 때 모든 상품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반영한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의 조사 대상과 가중치 산정 방식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가 소비하는 대표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기준연도의 고정된 소비 묶음으로 측정하는 지수이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생산자 단계에서 측정하는 지수이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 전체의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산출한다.
물가지수의 상품별 가중치는 동일하지 않고 소비지출액이나 생산·거래액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는 조사 대상과 거래 단계가 다르므로 가격 변동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O
소비자물가지수는 기준이 되는 소비 묶음과 가중치를 일정 기간 고정하여 계산하므로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소비자가 대체재로 이동하는 반응을 즉시 반영하지 못한다.

③ O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입 상품의 가격은 직접 포함하지 않는다.

④ O
물가수준은 특정 시점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고, 물가상승률은 그 물가수준이 일정 기간 동안 변한 비율이므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

⑤ X
틀린 표현은 '모든 상품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반영한다'이다. 실제로는 각 상품이 소비지출액이나 생산·거래액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서로 다른 가중치를 반영한다.

오답 포인트

물가지수가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다는 사실을 모든 상품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물가지수는 상품별 경제적 중요도를 가중치로 반영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조사 대상을 구분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계의 소비 묶음, 생산자물가지수는 생산자 단계의 거래,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 생산 최종 재화와 서비스가 기준이다. 다음으로 물가지수는 단순평균이 아니라 품목별 비중을 반영한 가중평균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CPI는 소비 묶음, PPI는 생산자 단계,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 생산이며,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서로 다르다.

NoteBase

문 109.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화가 기펜재라면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양(+)의 값을 갖는다.

② 두 재화가 서로 대체재의 관계에 있다면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③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곡선 상에 위치한 두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동일하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면 가격변화에 따른 판매총액은 증가한다.

⑤ 수요곡선이 수직선일 때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수요의 소득탄력성·교차탄력성·가격탄력성의 부호와 크기가 재화의 성격 및 판매총액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득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로, 정상재는 양(+), 열등재는 음(-)이다.
교차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해당 재화의 수요량 변화율로, 대체재는 양(+), 보완재는 음(-)이다.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절댓값이다. 직선 수요곡선에서는 위쪽에서 크고 중점에서 1이며 아래쪽에서 작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기펜재는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도 증가하는 특수한 열등재이므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음(-)이다. 틀린 표현은 '양(+)'이며, 올바르게는 '음(-)'이다.

② X
대체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므로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양(+)이다. 틀린 표현은 '음(-)'이며, 올바르게는 '양(+)'이다.

③ X
우하향하는 직선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일정해도 점마다 가격과 수요량의 비율이 달라 가격탄력성이 달라진다. 틀린 표현은 '동일하다'이며, 올바르게는 '위쪽에서는 크고 아래쪽에서는 작다'이다.

④ X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서로 상쇄되어 판매총액은 변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증가한다'이며, 올바르게는 '변하지 않는다'이다.

⑤ O
수직선인 수요곡선에서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 변화율이 0이므로 모든 점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다.

오답 포인트

기펜재라는 말만 보고 가격탄력성과 소득탄력성을 혼동하거나, 직선 수요곡선의 일정한 기울기를 일정한 탄력성으로 오해하기 쉽다. 또한 단위탄력적 수요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총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득탄력성은 정상재·열등재, 교차탄력성은 대체재·보완재를 먼저 구분한다. 가격탄력성은 수요곡선의 기울기 자체가 아니라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로 판단하며, 수직선이면 0이고 단위탄력적이면 판매총액이 변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기펜재는 열등재라 소득탄력성 음(-), 대체재는 교차탄력성 양(+), 수직 수요는 가격탄력성 0이다.

NoteBase

문 110. 우유의 수요곡선은 $Q_d = 100 - P$, 공급곡선은 $Q_s = P$이다. 정부가 우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는 가격,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이다.)

①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101이다.

② 보조금 지급 후 판매량은 52이다.

③ 보조금의 수혜규모는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크다.

④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1이다.

⑤ 보조금 지급 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우유 가격은 50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개당 보조금이 소비자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 사이에 만드는 차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균형, 보조금의 귀착, 정부 지출 및 경제적 순손실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을 P_c,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P_p라고 한다.
개당 보조금이 2이므로 $P_p = P_c + 2$이다.
보조금 전에는 하나의 시장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고, 보조금 후에는 $100 - P_c = P_p$가 성립한다.

사용할 공식

균형 조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는 것이므로 $Q_d = Q_s$를 사용한다.
정부의 총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단가× 보조금 지급 후 거래량이다.
선형 수요·공급에서 보조금으로 늘어난 거래량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 순손실은 (1)/(2)× 보조금 단가× 거래량 증가분이다.

계산 과정

1. 보조금 전에는 $100 - P = P$이므로 $P = 50$, $Q = 50$이다.
2. 보조금 후에는 $100 - P_c = P_c + 2$이므로 $P_c = 49$이다.
3. 따라서 $P_p = 51$, 보조금 후 거래량은 $Q = 51$이다.
4. 정부의 총보조금 지출은 $2 \times 51 = 102$이다.
5. 소비자가격은 50에서 49로 1만큼 하락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50에서 51로 1만큼 상승하므로 보조금 혜택은 양측에 동일하게 귀착된다.
6. 경제적 순손실은 $\frac{1}{2} \times 2 \times (51 - 50) = 1$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101이 아니라 $2 \times 51 = 102$이다. 틀린 표현 '101'은 올바르게는 '102'이다.
② X — 보조금 지급 후 판매량은 52가 아니라 51이다. 틀린 표현 '52'는 올바르게는 '51'이다.
③ X — 소비자는 가격 하락분 1, 생산자는 수취가격 상승분 1의 혜택을 얻으므로 수혜규모는 같다. 틀린 표현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크다'는 올바르게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다'이다.
④ O — 보조금으로 거래량이 50에서 51로 늘어나므로 경제적 순손실은 $\frac{1}{2} \times 2 \times 1 = 1$이다.
⑤ X — 보조금 지급 후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은 50이 아니라 49이다. 틀린 표현 '50'은 올바르게는 '49'이다.

오답 포인트

개당 보조금 2를 수요가격이나 공급가격 한쪽에만 단순히 더하여 거래량을 52로 계산하면 안 된다. 보조금은 소비자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 사이에 2의 차이를 만들며, 새 균형 거래량 51을 구한 뒤 총지출과 순손실을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보조금 문제에서는 먼저 소비자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을 구분하고, 두 가격의 차이를 보조금 단가로 둔다. 그다음 수요량과 공급량을 일치시켜 새 균형을 구하고, 가격 변화로 귀착을, 거래량 변화로 경제적 순손실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보조금은 가격 쐐기를 만들고, 총지출은 '단가×새 거래량', 선형 모형의 순손실은 '$\frac{1}{2}$×단가×거래량 증가분'이다.

NoteBase

문 111. A국은 세계 철강시장에서 무역을 시작하였다. 무역 이전과 비교하여 무역 이후에 A국 철강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세계 철강시장에서 A국은 가격수용자이며 세계 철강 가격은 무역 이전 A국의 국내 가격보다 높다. 또한 무역 관련 거래비용은 없다.)

ㄱ. A국의 국내 철강 가격은 세계 가격보다 높아진다.
ㄴ. A국의 국내 철강 거래량은 감소한다.
ㄷ.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ㄹ. 생산자잉여는 증가한다.
ㅁ. 총잉여는 감소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세계가격이 무역 전 국내가격보다 높은 소국이 자유무역을 시작할 때 국내가격, 국내 소비량,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총잉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국은 세계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가격수용자이므로 무역 후 국내 철강 가격은 세계가격과 같아진다.
세계가격이 무역 전 국내가격보다 높으므로 A국은 철강 수출국이 된다.
가격 상승으로 국내 소비량은 감소하고 국내 생산량은 증가하며, 그 차이가 수출량이 된다. 소비자잉여는 감소하고 생산자잉여는 증가한다. 거래비용이나 다른 왜곡이 없으므로 수출에서 생기는 무역이익만큼 총잉여는 증가한다.
따라서 옳은 진술은 ㄴ, ㄷ, 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ㄷ은 옳지만 ㄱ과 ㄴ을 함께 고른 조합은 옳지 않다. ㄱ의 '세계 가격보다 높아진다'가 틀렸으며, 국내가격은 세계가격과 같아진다. 옳은 조합은 ㄴ, ㄷ, ㄹ이다.
② X — ㄴ과 ㄹ은 옳지만 ㄱ이 틀렸다. 국내가격은 세계가격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상승한다. 옳은 조합은 ㄴ, ㄷ, ㄹ이다.
③ X — ㄷ은 옳지만 ㄱ과 ㅁ이 틀렸다. 국내가격은 세계가격과 같아지고, 총잉여는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이익만큼 증가한다. 옳은 조합은 ㄴ, ㄷ, ㄹ이다.
④ O — 세계가격까지 오른 가격 때문에 국내 소비량인 국내 거래량은 감소하고 소비자잉여는 감소하며 생산자잉여는 증가한다. 따라서 ㄴ, ㄷ, ㄹ의 조합이 옳다.
⑤ X —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이 틀렸다. 거래비용이 없는 자유무역에서는 수출로 얻는 이익이 생기므로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 옳은 조합은 ㄴ, ㄷ, ㄹ이다.

오답 포인트

ㄱ의 함정은 국내가격이 세계가격보다 '높아진다'고 표현한 데 있다. 가격수용국의 국내가격은 세계가격과 같아진다. 또한 생산자잉여의 증가분 가운데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역이익이므로, ㅁ처럼 총잉여가 감소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계가격과 무역 전 국내가격을 먼저 비교한다. 세계가격이 더 높으면 수출국이 되어 국내가격은 세계가격까지 상승하고, 국내 소비량은 감소하며 국내 생산량은 증가한다. 이어서 소비자잉여는 감소, 생산자잉여는 증가, 총잉여는 증가한다고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세계가격이 더 높으면 수출국이다. 가격 상승 → 소비 감소·생산 증가 → 소비자잉여 감소·생산자잉여 증가·총잉여 증가이다.

NoteBase

문 112. A재의 시장수요곡선은 $Q_d = 20 - 2P$이고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2로 일정하다. 이 시장이 완전경쟁일 경우와 비교하여 독점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는 얼마인가? (단, Q_d는 A재의 수요량, P는 A재의 가격이다.)

① 8
② 16
③ 20
④ 32
⑤ 4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역수요곡선에서 독점기업의 한계수입을 구한 뒤, 완전경쟁 생산량과 독점 생산량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을 삼각형의 넓이로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곡선: $Q_d = 20 - 2P$
역수요곡선: $P = 10 - \frac{1}{2}Q$
한계비용: $MC = 2$
구해야 할 값: 완전경쟁 생산량과 독점 생산량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제적 순손실

사용할 공식

선형 역수요곡선이 $P = a - bQ$이면 총수입은 $TR = aQ - bQ^2$, 한계수입은 $MR = a - 2bQ$이다.
독점기업은 $MR = MC$에서 생산량을 정하고, 완전경쟁시장은 $P = MC$에서 생산량을 정한다.
경제적 순손실은 두 생산량 사이에서 수요자의 지불의사와 한계비용 간 차이를 합한 것이므로 다음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DWL = \frac{1}{2} \times (Q_C - Q_M) \times (P_M - MC)$

계산 과정

1. 역수요곡선이 $P = 10 - \frac{1}{2}Q$이므로 $TR = 10Q - \frac{1}{2}Q^2$, $MR = 10 - Q$이다.
2. 독점 생산량은 $MR = MC$에서 정해지므로 $10 - Q_M = 2$, 따라서 $Q_M = 8$이다. 독점가격은 $P_M = 10 - \frac{1}{2} \times 8 = 6$이다.
3. 완전경쟁 생산량은 $P = MC$에서 정해지므로 $10 - \frac{1}{2}Q_C = 2$, 따라서 $Q_C = 16$이다.
4. 경제적 순손실은 $DWL = \frac{1}{2} \times (16 - 8) \times (6 - 2) = 16$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순손실이 8이라는 표현은 틀리다. 8은 $Q_C - Q_M = 16 - 8$로 계산되는 생산량 차이일 뿐이다. 올바른 순손실은 삼각형의 넓이인 16이다.
② O — 경제적 순손실은 $\frac{1}{2} \times 8 \times 4 = 16$이므로 계산 결과와 일치한다.
③ X — 순손실이 20이라는 표현은 틀리다. 생산량 차이 8과 가격·한계비용 차이 4를 이용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면 올바른 값은 16이다.
④ X — 순손실이 32라는 표현은 틀리다. 32는 8×4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거나 삼각형 계수 $\frac{1}{2}$를 빠뜨릴 때 나오는 값이다. 올바른 값은 16이다.
⑤ X — 순손실이 40이라는 표현은 틀리다. 순손실 삼각형의 밑변은 8, 높이는 4이므로 올바른 값은 16이다.

오답 포인트

독점 생산량 8을 순손실로 착각하거나, 생산량 감소분 8과 가격·한계비용 차이 4를 곱한 뒤 삼각형 계수 $\frac{1}{2}$를 빠뜨리면 오답이 된다. 독점에 따른 순손실은 독점이 줄인 거래량 구간에서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요곡선을 역수요곡선으로 바꾸고 $MR = MC$에서 독점 생산량, $P = MC$에서 완전경쟁 생산량을 구한다. 그다음 두 생산량의 차이를 밑변, 독점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를 높이로 하여 순손실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선형수요 독점의 순손실은 '경쟁량과 독점량의 차이 × 독점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 ÷ 2'이다.

NoteBase

문 113. 정부의 가격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암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가격하한제는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③ 최저임금제는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하지만 실업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④ 전쟁 시에 식료품 가격안정을 위해서 시장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⑤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규제 방향, 효력이 생기는 설정 수준,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격상한제는 정부가 거래가격의 최고 한도를 정하여 그 가격보다 높게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시장균형가격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수요량은 늘고 공급량은 줄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가격하한제는 정부가 거래가격의 최저 한도를 정하여 그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시장균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공급량은 늘고 수요량은 줄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격상한제는 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최고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틀린 표현인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가격하한제가 시장균형가격 이하에서 설정되면 시장가격을 제한하지 못한다.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실제 거래가격의 하한으로 작용한다.

③ O
최저임금제는 노동가격인 임금에 대한 가격하한제이다.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노동수요는 감소하므로 노동의 초과공급, 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④ O
전쟁 시 식료품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려는 최고가격은 가격상한제이다.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설정해야 시장가격을 실제로 제한하는 효력이 생긴다.

⑤ O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분양가 상한은 아파트 가격을 낮게 제한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상한'과 '하한'의 거래 제한 방향을 뒤바꾼 선지이다. 가격상한은 높은 가격을 금지하고, 가격하한은 낮은 가격을 금지한다. 또한 규제가 균형가격의 어느 쪽에 설정되어야 효력이 있는지도 함께 구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상한은 가격의 위쪽을 막고 하한은 아래쪽을 막는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상한은 균형가격보다 낮을 때, 하한은 균형가격보다 높을 때 효력이 생긴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량 증가·공급량 감소,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량 감소·공급량 증가를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상한은 균형 아래에서 초과수요, 하한은 균형 위에서 초과공급이다.

NoteBase

문 114.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Q_d = 8 - 0.5P$이고 공급곡선은 $Q_s = P - 4$라고 할 때, 균형가격(P)과 소비자잉여(CS)의 크기는? (단, Q_d는 수요량, Q_s는 공급량이다.)

① $P = 4,\ CS = 8$

② $P = 4,\ CS = 16$

③ $P = 8,\ CS = 8$

④ $P = 8,\ CS = 16$

⑤ $P = 10,\ CS = 8$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균형가격을 구한 뒤, 수요곡선과 균형가격선 사이의 삼각형 넓이로 소비자잉여를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수요함수는 $Q_d = 8 - 0.5P$, 공급함수는 $Q_s = P - 4$이다.
균형에서는 $Q_d = Q_s$가 성립한다.
소비자잉여를 구하려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뿐 아니라 수요가격절편도 확인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균형 조건: $Q_d = Q_s$
소비자잉여: CS=(1)/(2)×(수요가격절편-균형가격)×균형거래량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수요량과 시장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에서 균형이 형성되고, 선형 수요곡선 아래이면서 균형가격 위인 영역이 삼각형이므로 이 공식을 사용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균형가격을 구한다.

$8 - 0.5P = P - 4$

$12 = 1.5P$

$P = 8$

2. 균형거래량을 구한다.

$Q = 8 - 0.5 \times 8 = 4$

공급함수에 대입해도 $Q = 8 - 4 = 4$로 같다.

3. 수요가격절편을 구한다. $Q_d = 0$으로 두면 $0 = 8 - 0.5P$이므로 $P = 16$이다.

4. 소비자잉여를 계산한다.

$CS = \frac{1}{2} \times (16 - 8) \times 4 = 16$

따라서 균형가격은 $P = 8$, 소비자잉여는 $CS = 16$이다.

선지 판단

① X

$P = 4$와 $CS = 8$은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P = 8$, $CS = 16$이다.

② X

$CS = 16$은 맞지만 $P = 4$가 틀렸다. 올바르게는 $P = 8$, $CS = 16$이다.

③ X

$P = 8$은 맞지만 $CS = 8$이 틀렸다. 이는 삼각형의 높이 $16 - 8 = 8$만 보고 균형거래량 4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올바르게는 $CS = 16$이다.

④ O

균형 조건에서 $P = 8$, $Q = 4$가 나오고, 소비자잉여는 $\frac{1}{2} \times (16 - 8) \times 4 = 16$이므로 모두 맞다.

⑤ X

$P = 10$과 $CS = 8$은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P = 8$, $CS = 16$이다.

오답 포인트

소비자잉여 삼각형의 높이는 수요가격절편 자체인 16이 아니라 수요가격절편과 균형가격의 차이인 $16 - 8 = 8$이다. 또한 삼각형 넓이를 계산할 때 균형거래량 4와 $\frac{1}{2}$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균형가격만 구하고 소비자잉여를 바로 고르면 ③에 빠지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형 수요·공급 문제는 먼저 $Q_d = Q_s$로 균형가격을 구하고, 그 가격을 함수에 대입해 균형거래량을 구한다. 이어서 $Q_d = 0$으로 수요가격절편을 찾은 뒤 소비자잉여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한다. 마지막에는 균형거래량을 수요함수와 공급함수에 각각 대입해 같은지 검산한다.

암기 포인트

균형은 수요량=공급량, 소비자잉여는 (1)/(2)×(최대지불의사-시장가격)×거래량이다.

NoteBase

문 115. A 기업의 생산함수는 $Q = 12L^{0.5}K^{0.5}$이다. A 기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각각 $L = 4$, $K = 9$일 때, 노동의 한계생산(MP_L)과 평균생산(AP_L)은?

① $MP_L = 0, \quad AP_L = 9$

② $MP_L = 9, \quad AP_L = 9$

③ $MP_L = 9, \quad AP_L = 18$

④ $MP_L = 12, \quad AP_L = 18$

⑤ $MP_L = 18, \quad AP_L = 9$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생산함수를 노동 투입량으로 편미분하여 노동의 한계생산을 구하고, 총생산을 노동 투입량으로 나누어 노동의 평균생산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생산함수는 $Q = 12L^{0.5}K^{0.5}$이고, 투입량은 $L = 4$, $K = 9$이다.
구해야 할 값은 노동의 한계생산 MP_L과 평균생산 AP_L이다.
한계생산은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할 때의 생산량 변화이므로 노동에 대한 편미분으로 구하고, 평균생산은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이므로 Q/L로 구한다.

사용할 공식

$MP_L = \frac{\partial Q}{\partial L}$
$AP_L = \frac{Q}{L}$
자본 투입량 K를 고정한 채 노동 투입량 L의 변화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해야 하므로 첫 번째 공식을 사용하며, 노동 한 단위당 생산량을 구해야 하므로 두 번째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노동의 한계생산을 계산한다.
$MP_L = \frac{\partial}{\partial L}(12L^{0.5}K^{0.5}) = 6L^{-0.5}K^{0.5} = 6\sqrt{\frac{K}{L}}$
$MP_L = 6\sqrt{\frac{9}{4}} = 6 \times \frac{3}{2} = 9$
2. 총생산을 계산한다.
$Q = 12\sqrt{4}\sqrt{9} = 12 \times 2 \times 3 = 72$
3. 노동의 평균생산을 계산한다.
$AP_L = \frac{Q}{L} = \frac{72}{4} = 18$
따라서 $MP_L = 9$, $AP_L = 18$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MP_L = 0$, $AP_L = 9$라는 두 값이 모두 계산 결과와 다르다. 올바르게는 $MP_L = 9$, $AP_L = 18$이다.
② X — $MP_L = 9$는 맞지만 $AP_L = 9$가 틀리다. 올바르게는 $AP_L = 18$이다.
③ O — 편미분한 결과가 $MP_L = 9$이고 Q/L의 값이 $AP_L = 18$이므로 두 값이 모두 맞다.
④ X — $AP_L = 18$은 맞지만 $MP_L = 12$가 틀리다. 올바르게는 $MP_L = 9$이다.
⑤ X — $MP_L = 18$, $AP_L = 9$는 한계생산과 평균생산의 값을 서로 바꾼 것이다. 올바르게는 $MP_L = 9$, $AP_L = 18$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항의 함정은 한계생산과 평균생산을 혼동하는 데 있다. 한계생산은 생산함수를 L로 편미분하므로 지수 0.5가 계수에 곱해지지만, 평균생산은 총생산을 L로 나눈다. 특히 ⑤는 두 계산 결과를 정확히 뒤바꾼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함수 문제가 나오면 한계생산은 해당 생산요소로 편미분하고 평균생산은 총생산을 해당 생산요소의 투입량으로 나눈 뒤, 주어진 투입값을 대입하여 선지와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한계생산은 미분, 평균생산은 나눗셈이다. 즉 $MP_L = \partial Q/\partial L$, $AP_L = Q/L$이다.

NoteBase

문 116. 독점기업의 가격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점기업이 시장에서 한계수입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가격차별 전략이다.

② 1급 가격차별의 경우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과 같다.

③ 2급 가격차별은 소비자들의 구매수량과 같이 구매 특성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발생한다.

④ 3급 가격차별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가격차별이 성립한다.

⑤ 영화관 조조할인은 3급 가격차별의 사례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독점기업의 일반적인 단일가격 책정과 1급·2급·3급 가격차별의 구별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격차별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화를 비용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전략이다.
1급 가격차별은 각 소비자의 최대 지불용의만큼 개별 가격을 부과한다.
2급 가격차별은 구매수량이나 상품 묶음 등 소비자가 선택한 구매 조건에 따라 단가를 달리한다.
3급 가격차별은 시장을 관찰 가능한 집단이나 시간대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다른 가격을 부과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독점기업이 한계수입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가격차별이 아니다.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한 단일가격 독점기업도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다. 틀린 표현은 '한계수입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가격차별 전략'이며, 올바르게는 '비용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서로 다른 가격을 소비자나 거래 조건별로 부과하는 것이 가격차별 전략'이다.

② O
1급 가격차별에서는 각 소비자의 지불용의를 모두 파악하여 한계지불용의가 한계비용과 같아질 때까지 판매하므로 생산량이 완전경쟁시장의 효율적 생산량과 같다.

③ O
2급 가격차별은 소비자의 신원을 직접 구분하지 않고 구매수량, 상품 묶음, 요금제 등 선택한 구매 조건에 따라 가격이나 단가를 달리하는 방식이다.

④ O
3급 가격차별을 유지하려면 낮은 가격을 적용받은 집단이 높은 가격의 집단에 재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시장 간 재판매가 불가능하거나 충분히 어려워야 한다.

⑤ O
영화관 조조할인은 관람 시간대를 기준으로 수요가 다른 고객 집단을 구분하여 다른 가격을 부과하므로 3급 가격차별의 사례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다'는 독점의 일반적 성질을 가격차별의 정의로 바꿔 놓았다. 가격차별 여부는 가격과 한계수입의 대소가 아니라 동일한 재화에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지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서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지를 확인한 뒤 구분 기준을 본다. 개인별 지불용의이면 1급, 구매수량·상품 묶음 등 자기선택 조건이면 2급, 소비자 집단·지역·시간대 구분이면 3급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1급은 개인별, 2급은 수량·메뉴별, 3급은 집단별 가격차별이다. 단순히 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다는 것은 가격차별의 기준이 아니다.

NoteBase

문 117. 꾸르노(Cournot) 경쟁을 하는 복점시장에서 역수요함수는 $P = 18 - q_1 - q_2$이다. 두 기업의 비용구조는 동일하며 고정비용 없이 한 단위당 생산비용은 6일 때, 기업1의 균형가격과 균형생산량은? (단, P는 가격, q_1은 기업1의 생산량, q_2는 기업2의 생산량이다.)

① $P = 10, \quad q_1 = 2$

② $P = 10, \quad q_1 = 4$

③ $P = 14, \quad q_1 = 4$

④ $P = 14, \quad q_1 = 8$

⑤ $P = 14, \quad q_1 = 10$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동일한 비용구조를 가진 두 기업의 꾸르노 경쟁에서 각 기업의 반응함수를 구하고, 대칭균형 생산량과 시장가격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역수요함수: $P = 18 - q_1 - q_2$
한계비용: $MC = 6$
고정비용: 0
두 기업은 상대 기업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며, 비용구조가 같으므로 대칭균형에서 $q_1 = q_2$이다.

사용할 공식

기업 1의 이윤은
$\pi_1 = (P - 6)q_1 = (12 - q_1 - q_2)q_1$
이다. 꾸르노 경쟁에서는 상대 기업의 생산량을 고정한 채 자기 생산량으로 이윤을 미분하므로 기업 1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frac{\partial \pi_1}{\partial q_1} = 12 - 2q_1 - q_2 = 0$
이다.

계산 과정

1. 기업 1의 반응함수는 $q_1 = 6 - \frac{1}{2}q_2$이다.
2. 대칭균형에서 $q_1 = q_2 = q$이므로 $q = 6 - \frac{1}{2}q$이고, 따라서 $q = 4$이다.
3. 총생산량은 $q_1 + q_2 = 8$이므로 균형가격은 $P = 18 - 8 = 10$이다.

따라서 기업 1의 균형생산량은 4이고 균형가격은 1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가격 10은 맞지만 기업 1의 생산량 2가 틀리다. 올바르게는 $P = 10,\ q_1 = 4$이다.
② O — 대칭 꾸르노 균형에서 $q_1 = q_2 = 4$이고, 이를 역수요함수에 대입하면 $P = 10$이다.
③ X — 기업 1의 생산량 4는 맞지만 가격 14가 틀리다. 올바르게는 총생산량 8을 반영한 $P = 10,\ q_1 = 4$이다.
④ X — 가격 14와 기업 1의 생산량 8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P = 10,\ q_1 = 4$이다.
⑤ X — 가격 14와 기업 1의 생산량 10이 모두 틀리다. 올바르게는 $P = 10,\ q_1 = 4$이다.

오답 포인트

③의 가격 14는 기업 1의 생산량 4만 수요함수에서 차감하고 기업 2의 생산량 4를 누락하면 나오는 값이다. 시장가격은 한 기업의 생산량이 아니라 총생산량 $q_1 + q_2$으로 결정된다. 또한 이윤의 일계조건에서 자기 생산량 항의 계수는 2가 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꾸르노 문제는 각 기업의 이윤함수 작성, 반응함수 도출, 대칭조건 적용, 총생산량을 역수요함수에 대입하는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선형수요 $P = a - Q$, 동일한 한계비용 c인 대칭 꾸르노 복점에서는 각 기업의 생산량이 $\frac{a-c}{3}$이고, 가격은 $\frac{a+2c}{3}$이다.

NoteBase

문 118.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니계수 값이 커질수록 더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② 십분위분배율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③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④ 동일한 지니계수 값을 갖는 두 로렌츠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

⑤ 전체 구성원의 소득기준 하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10%를 벌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십분위분배율·로렌츠 곡선의 의미와 상호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로렌츠 곡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누적인구비율과 누적소득비율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 완전평등이면 대각선인 완전평등선과 일치한다.
지니계수는 완전평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 면적을 이용한 불평등 지표이다.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값이 클수록 하위 계층의 상대적 몫이 크므로 더 평등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완전평등에 가깝고, 값이 커질수록 로렌츠 곡선이 완전평등선에서 더 멀어져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뜻한다.
② O —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의 소득점유율을 상위 20%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이므로, 그 값이 커질수록 저소득층의 상대적 소득 몫이 커져 분배가 더 균등하다.
③ O —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같으면 누적인구비율과 누적소득비율이 항상 같으므로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인 완전평등선과 일치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두 로렌츠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이다. 지니계수는 곡선과 완전평등선 사이의 전체 면적만 나타내므로, 서로 교차하는 두 로렌츠 곡선도 그 면적이 같아 동일한 지니계수를 가질 수 있다. 올바르게는 "동일한 지니계수 값을 갖는 두 로렌츠 곡선도 교차할 수 있다"이다.
⑤ O — 소득순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10% 계층의 평균소득은 나머지 계층의 소득보다 클 수 없다. 그런데 이 계층이 전체 소득의 10%를 얻는다면 그 평균소득이 전체 평균소득과 같아지므로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같아야 하고,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지니계수가 같다는 사실을 로렌츠 곡선의 모양까지 같다는 뜻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지니계수는 전체 면적을 하나의 수치로 요약할 뿐이므로 곡선의 교차 여부나 구체적인 분배 형태까지 결정하지 않는다. 또한 ⑤는 하위 10%의 소득점유율이 10%라는 조건이 완전평등을 뜻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니계수는 클수록 불평등, 십분위분배율은 클수록 평등으로 방향을 먼저 구분한다. 로렌츠 곡선에서는 완전평등이면 대각선과 일치하며, 지니계수가 같다는 것은 면적이 같다는 뜻일 뿐 곡선의 모양이나 교차 여부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암기 포인트

지니계수는 클수록 불평등, 십분위분배율은 클수록 평등이다. 같은 지니계수라도 로렌츠 곡선은 교차할 수 있다.

NoteBase

문 119. 우리나라 고용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모가 경영하는 가게에서 무급으로 하루 5시간씩 주 5일 배달 일을 도와주는 아들은 취업자이다.

② 학생은 유급 파트타임 노동을 하더라도 주로 하는 활동이 취업이 아니므로 취업자가 될 수 없다.

③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고교 졸업생 중 취업자는 줄고 대학진학자가 증가하였다면, 취업률은 감소하지만 고용률은 변화가 없다.

④ 실업률은 '(100% - 고용률)'이다.

⑤ 실업자 수는 취업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분류 기준과 취업률·실업률·고용률의 분모 차이를 묻는다.

핵심 개념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뿐 아니라,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도 포함한다.
취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로, 취업자/(취업자+실업자)×100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로, 실업자/(취업자+실업자)×100이다.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로, 취업자/생산가능인구×100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무급가족종사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하루 5시간씩 주 5일이면 주 25시간이므로 부모의 가게에서 임금 없이 일하더라도 취업자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학생은 유급 파트타임 노동을 하더라도 취업자가 될 수 없다'이다. 학생 여부나 주된 활동이 아니라 실제 취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므로, 조사대상 주간에 유급으로 1시간 이상 일한 학생도 취업자가 될 수 있다.

③ X
틀린 표현은 '고용률은 변화가 없다'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한데 취업자가 줄고 그만큼 대학진학자가 늘면 취업자 수가 감소하므로 취업률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도 감소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실업률은 100%에서 고용률을 뺀 값'이다. 실업률과 취업률은 모두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하므로 실업률=100\%-취업률이지만,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를 분모로 하므로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⑤ X
틀린 표현은 '실업자 수는 취업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이다. 취업률의 분모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이므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실업자 수가 늘면 취업률은 낮아진다.

오답 포인트

④에서 취업률과 고용률을 같은 지표로 착각하기 쉽다. 100%에서 실업률을 뺀 값은 고용률이 아니라 경제활동인구를 같은 분모로 쓰는 취업률이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는 임금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람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한 뒤 지표의 분모를 확인한다. 취업률과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이고, 고용률의 분모는 생산가능인구이다.

암기 포인트

유급근로는 주 1시간 이상, 무급가족종사는 주 18시간 이상이면 취업자이다. 취업률과 실업률은 같은 분모, 고용률은 더 넓은 분모를 쓴다.

NoteBase

문 120. 시간당 임금이 5,000에서 6,000으로 인상될 때, 노동수요량이 10,000에서 9,000으로 감소하였다면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단,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절대값이다.)

① 0.67%

② 1%

③ 0.5

④ 1

⑤ 2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임금의 변화율에 대한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을 이용해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임금: 5,000에서 6,000으로 증가한다.
노동수요량: 10,000에서 9,000으로 감소한다.
구해야 할 값: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의 절대값이다.

사용할 공식

≤ft|E_L|=≤ft|노동수요량의 변화율임금의 변화율|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임금이 1% 변할 때 노동수요량이 몇 % 변하는지를 나타내므로 두 변화율의 비율을 사용한다. 문제에서 절대값을 요구하므로 노동수요량 감소에 따른 음의 부호는 제거한다.

계산 과정

1.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은 $\frac{9,000-10,000}{10,000}=-0.1$, 즉 -10%이다.
2. 임금의 변화율은 $\frac{6,000-5,000}{5,000}=0.2$, 즉 20%이다.
3. 따라서 $|E_L|=\left|\frac{-0.1}{0.2}\right|=0.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 0.67%는 계산 결과 0.5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0.67%'는 '0.5'로 고쳐야 한다. 탄력성은 두 변화율의 비율이므로 퍼센트가 아닌 무차원 수로 나타낸다.
② X — 1%는 계산 결과 0.5와 일치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1%'는 '0.5'로 고쳐야 한다. 노동수요량 변화율 10%를 임금 변화율 20%로 나누어야 한다.
③ O — 노동수요량 변화율의 절대값 10%를 임금 변화율 20%로 나누면 0.5가 된다.
④ X — 1은 두 변화율의 크기가 같을 때의 탄력성이다. 이 문제에서는 10%와 20%로 서로 다르므로 틀린 표현 '1'은 '0.5'로 고쳐야 한다.
⑤ X — 2는 임금 변화율 20%를 노동수요량 변화율 10%로 나눈 역수이다. 틀린 표현 '2'는 '0.5'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노동수요량의 감소율 10%와 임금의 증가율 20%를 단순히 확인하는 데서 멈추거나 분자와 분모를 거꾸로 두면 오답이 된다. 특히 ⑤의 2는 탄력성 공식을 역으로 적용한 값이다. 또한 '절대값' 조건 때문에 최종값은 -0.5가 아니라 0.5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량 변화율을 구하고, 다음으로 가격 또는 임금 변화율을 구한 뒤, '수량 변화율 ÷ 가격·임금 변화율'의 순서로 계산한다. 절대값 조건이 있으면 마지막에 부호를 제거한다.

암기 포인트

탄력성은 반응하는 양의 변화율을 원인이 되는 변수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노동수요량 변화율 ÷ 임금 변화율'이다.

NoteBase

문 121. 생산물에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생산에서 자본은 고정되어 있다.)

① 고용은 감소한다.

② 임금은 상승한다.

③ 구매자가 내는 상품가격이 하락한다.

④ 노동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⑤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생산물에 물품세가 부과될 때 상품시장의 조정이 파생수요인 노동수요와 고용·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물품세는 구매자가 지급하는 가격과 생산자가 수취하는 순가격 사이에 조세 쐐기를 만든다. 이에 따라 구매자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 수취가격은 하락하며 생산량은 감소한다.
노동수요는 생산물 수요에서 파생되는 수요이다. 생산량 감소와 생산자 수취가격 하락은 노동의 가치한계생산을 낮추므로 노동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노동공급곡선이 그대로라면 균형임금과 고용량이 모두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물품세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노동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므로 균형고용은 감소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임금은 상승한다'이다. 노동수요 감소로 균형임금은 하락한다.
③ X — 틀린 표현은 '구매자가 내는 상품가격이 하락한다'이다. 물품세가 만드는 조세 쐐기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상품가격은 상승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노동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이다. 물품세는 생산물에 부과되므로 노동공급 조건은 변하지 않아 노동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⑤ X — 틀린 표현은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이다. 생산량과 생산자 수취가격이 낮아져 노동의 가치한계생산이 감소하므로 노동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오답 포인트

물품세가 상품시장에 부과된다는 이유로 노동시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함정이다. 노동수요는 생산물시장에서 파생되므로 물품세로 생산이 위축되면 노동수요도 감소한다. 또한 구매자 지급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의 움직임은 반대 방향임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물에 세금 부과 → 구매자 가격 상승·생산자 수취가격 하락 → 생산량 감소 → 노동수요 감소 → 임금과 고용 감소의 순서로 판단한다. 노동공급의 결정요인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노동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물품세는 생산을 줄이고, 파생수요인 노동수요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NoteBase

문 122.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은? (단, 상품시장은 독점이고 생산에서 자본은 고정되어 있다.)

① 한계비용과 임금이 일치

② 한계비용과 평균수입이 일치

③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와 임금이 일치

④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한계노동비용(marginal labor cost)이 일치

⑤ 노동의 한계수입생산(marginal revenue product)과 한계노동비용이 일치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상품시장의 독점과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을 동시에 반영하여 노동 고용량의 이윤극대화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상품시장이 독점이므로 가격이 아니라 한계수입을 사용한다.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이므로 임금이 아니라 한계노동비용을 사용한다.
자본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할 때의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비교한다.

사용할 공식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은
$MRP_L = MR \times MP_L$
이고, 한계노동비용은
$MLC = \frac{d(wL)}{dL}$
이다. 따라서 내부해에서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MRP_L = MLC$
이다.
상품시장이 독점이면 $MR < P$이므로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한계생산물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이면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하여 일반적으로 $MLC > w$이므로 한계노동비용과 임금도 구분해야 한다.

판단 과정

노동을 한 단위 더 고용할 때 기업이 얻는 추가 수입은 MRP_L이다. 추가 지출은 MLC이다. $MRP_L > MLC$이면 고용을 늘리고, $MRP_L < MLC$이면 고용을 줄이므로 두 값이 같아지는 고용량에서 이윤이 극대화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한계비용과 임금이 일치'는 노동 한 단위의 추가 수입과 추가 비용을 비교하지 않은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한계노동비용이 일치해야 한다.
② X — 독점 상품시장에서 '한계비용과 평균수입이 일치'하는 것이 이윤극대화 조건은 아니다. 산출량 기준으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고, 노동투입 기준으로는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한계노동비용이 일치해야 한다.
③ X —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임금이 일치'는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경쟁적일 때의 조건이다. 이 문제에서는 독점과 수요독점을 반영하여 노동의 한계수입생산과 한계노동비용이 일치해야 한다.
④ X —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한계노동비용이 일치'는 상품시장의 독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한계생산물가치 $VMP_L = P \times MP_L$가 아니라 한계수입생산 $MRP_L = MR \times MP_L$을 사용해야 한다.
⑤ O — 상품시장의 독점은 노동의 한계수입생산에,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은 한계노동비용에 반영된다. 따라서 $MRP_L = MLC$가 이윤극대화 조건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경쟁적 상품시장·경쟁적 노동시장의 조건이고, ④는 수요독점만 반영하고 상품시장의 독점을 빠뜨린 조건이다. 이 문제의 함정은 '독점'에서는 P 대신 MR, '수요독점'에서는 w 대신 MLC를 사용해야 한다는 두 가지 변환 중 하나만 적용하는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의 한계편익은 상품시장이 경쟁적이면 $VMP_L = P \times MP_L$, 독점이면 $MRP_L = MR \times MP_L$로 판단한다. 노동의 한계비용은 노동시장이 경쟁적이면 임금 w, 수요독점이면 한계노동비용 MLC로 판단한다. 문제의 두 시장 구조를 각각 확인한 뒤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일치시킨다.

암기 포인트

상품 독점은 $P \rightarrow MR$, 노동 수요독점은 $w \rightarrow MLC$이다. 둘이 동시에 존재하면 $MRP_L = MLC$이다.

NoteBase

문 123.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완전경쟁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화되면 고용은 줄어든다.
ㄴ. 단기 노동수요곡선은 장기 노동수요곡선보다 임금의 변화에 비탄력적이다.
ㄷ. 채용비용이 존재할 때 숙련 노동수요곡선은 미숙련 노동수요곡선 보다 임금의 변화에 더 탄력적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노동시장의 수요독점이 고용량에 미치는 영향과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을 결정하는 기간·채용비용의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수요독점 노동시장: 노동의 유일한 수요자인 기업이 노동을 추가로 고용할 때 한계요소비용이 임금보다 커지는 시장이다. 완전경쟁보다 고용량과 임금이 낮아진다.
단기와 장기 노동수요: 단기에는 자본 등 다른 생산요소를 조정하기 어려워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장기에는 생산요소의 대체와 생산방식의 조정이 가능해 더 탄력적이다.
채용비용과 숙련도: 채용·훈련 등 임금 외 비용의 비중이 클수록 임금 변화가 총노동비용을 바꾸는 비율이 작아져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이 낮아진다. 일반적으로 숙련노동은 미숙련노동보다 이러한 비용이 크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도 옳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ㄴ을 제외한 것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② X
ㄷ은 옳지 않고 ㄱ과 ㄴ은 옳다. 틀린 부분은 ㄷ만 고른 것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③ O
ㄱ과 ㄴ은 옳고 ㄷ은 옳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조합이다. 노동시장이 수요독점화되면 기업은 완전경쟁 수준보다 고용을 줄이며, 단기 노동수요는 장기 노동수요보다 임금 변화에 비탄력적이다.

④ X
ㄴ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고 ㄱ은 옳다. 틀린 부분은 ㄷ을 포함하고 ㄱ을 제외한 것이며, 올바른 조합은 ㄱ, ㄴ이다.

⑤ X
ㄱ과 ㄴ은 옳지만 ㄷ은 옳지 않으므로 세 설명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다. ㄷ의 '더 탄력적'이 틀렸으며, 채용비용이 존재할 때 숙련 노동수요곡선은 미숙련 노동수요곡선보다 임금 변화에 더 비탄력적이다.

오답 포인트

ㄷ에서는 숙련노동의 높은 임금만 보고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채용·훈련비처럼 임금 이외의 비용이 크면 임금 변화가 총노동비용에 미치는 비율이 작아지므로 숙련 노동수요는 상대적으로 덜 탄력적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노동수요의 탄력성은 조정 가능성과 총노동비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판단한다. 장기는 생산요소 조정이 쉬워 단기보다 탄력적이고, 채용비용의 비중이 큰 노동은 임금 변화에 대한 수요 반응이 작다. 수요독점은 한계요소비용을 높여 경쟁시장보다 고용을 줄인다.

암기 포인트

수요독점은 고용 감소, 단기는 덜 탄력적, 채용비용이 큰 숙련노동도 덜 탄력적이다.

NoteBase

문 124.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A의 효용함수가 $U = Y + 2L$이고, 총가용시간은 24시간이다. 시간당 임금이 변화할 때, A의 노동공급시간과 여가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U = 효용, Y = 소득, L = 여가시간이다.)

ㄱ.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언제나 노동공급시간을 증가시킨다.
ㄴ. 시간당 임금이 1이면 노동공급시간은 3이다.
ㄷ. 시간당 임금이 3이면 여가시간은 0이다.
ㄹ. 시간당 임금이 3에서 4로 상승하면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시간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득-여가 예산식을 효용함수에 대입하여 임금과 여가의 한계효용계수 2를 비교하고, 최적 노동공급시간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총가용시간 24시간은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합이다. 노동시간을 H, 시간당 임금을 w라 하면 $H = 24 - L$이고 근로소득은 $Y = wH = w(24 - L)$이다. 여가시간의 범위는 $0 \leq L \leq 24$이다.

사용할 공식

$U = w(24 - L) + 2L = 24w + (2 - w)L$
효용이 여가시간 L의 일차식이므로 L의 계수 $2 - w$의 부호로 최적 여가시간을 판단한다. $w < 2$이면 여가를 늘릴수록 효용이 커지고, $w > 2$이면 여가를 줄일수록 효용이 커진다. $w = 2$이면 모든 여가시간에서 효용이 같다.

NoteBase

계산 과정

1. $w < 2$이면 $2 - w > 0$이므로 $L = 24, H = 0$이다.
2. $w > 2$이면 $2 - w < 0$이므로 $L = 0, H = 24$이다.
3. $w = 2$이면 $2 - w = 0$이므로 0≤ L≤24의 모든 조합이 최적이다.
4. 따라서 임금이 1일 때 노동공급시간은 0이고, 임금이 3 또는 4일 때 노동공급시간은 24, 여가시간은 0이다.
5. ㄱ은 임금 상승 후에도 노동공급이 그대로일 수 있으므로 X, ㄴ은 노동공급시간이 3이 아니라 0이므로 X, ㄷ과 ㄹ은 O이다.

선지 판단

① X — ㄱ과 ㄴ이 모두 틀리다. ‘ㄱ, ㄴ’이 아니라 ㄷ과 ㄹ이 옳다. 임금 상승이 언제나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임금이 1이면 노동공급시간은 3이 아니라 0이다.
② X — ㄷ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ㄴ, ㄷ’이 아니라 ㄷ과 ㄹ이 옳으며, 임금이 1일 때는 여가 24시간과 노동 0시간을 선택한다.
③ O — 임금이 3이면 $w > 2$이므로 여가시간은 0이고 노동공급시간은 24이다. 임금이 3에서 4로 상승해도 두 임금 모두 2보다 크므로 노동공급시간은 24로 유지된다. 따라서 ㄷ과 ㄹ이 모두 옳다.
④ X — ㄷ만 맞고 ㄱ과 ㄴ은 틀리다. ‘ㄱ, ㄴ, ㄷ’이 아니라 ㄷ과 ㄹ이 옳다. 특히 ㄱ의 ‘언제나 증가시킨다’는 표현은 틀리고, 올바르게는 임금구간에 따라 노동공급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⑤ X — ㄷ과 ㄹ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ㄴ, ㄷ, ㄹ’이 아니라 ㄷ과 ㄹ이 옳으며, ㄴ은 ‘임금이 1이면 노동공급시간은 0이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선형 효용함수에서는 임금이 조금 오를 때마다 노동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내부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임금 w가 여가의 계수 2보다 작은지 큰지에 따라 최적 선택이 양 끝점으로 바뀐다. 특히 ㄱ의 ‘언제나’와 ㄴ의 노동공급시간 3이라는 수치가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득식을 효용함수에 대입한 뒤 여가시간의 계수를 확인한다. 계수가 양수이면 여가를 최대로, 음수이면 여가를 최소로 선택하며, 0이면 모든 시간배분이 최적이다.

암기 포인트

선형 소득-여가 모형에서는 임금과 여가의 한계효용계수를 비교한다. 이 문항의 경계임금은 2이며, 2 미만은 전부 여가, 2 초과는 전부 노동이다.

NoteBase

문 125.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육과 현장훈련을 받는 행위를 인적투자라고 한다.

② 선별가설(screen hypothesis)은 교육이 노동수익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인적자본 이론을 비판한다.

③ 똑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상응가치(comparable worth)원칙이라고 한다.

④ 이중노동시장이론에 의하면, 내부노동시장은 하나의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을 말한다.

⑤ 이중노동시장이론에서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을 2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이라고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노동시장의 인적자본이론·선별가설·상응가치 원칙·이중노동시장이론을 구분하고, 상응가치 원칙의 정확한 의미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적투자는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노동자의 지식·기술과 생산능력을 높이는 행위이다.
선별가설은 교육이 생산성을 직접 높이기보다 원래 능력이 높은 사람을 고용주에게 가려내는 신호로 기능한다고 본다.
상응가치 원칙은 직무가 서로 달라도 요구되는 숙련·노력·책임·근로조건 등 직무의 가치가 같으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중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을 고임금·안정적 고용의 1차 노동시장과 저임금·불안정한 고용의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교육과 현장훈련은 노동자의 지식과 숙련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비용을 부담하는 인적투자에 해당한다.
② O. 선별가설은 교육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 임금을 상승시킨다는 인적자본이론의 인과관계를 비판하고, 교육을 능력이나 생산성을 드러내는 신호로 본다.
③ X. 틀린 표현은 "똑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취지에 해당한다. 상응가치 원칙은 서로 다른 일이라도 직무의 가치가 같으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O. 내부노동시장은 한 기업이나 조직 내부에서 승진·배치·임금 등이 내부 규칙과 관행에 따라 결정되는 노동시장이다.
⑤ O. 2차 노동시장은 낮은 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낮은 고용안정성과 제한된 승진 기회가 나타나는 부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의 "똑같은 일"을 "가치가 같은 일"과 혼동하기 쉽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같은 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응가치는 서로 다른 직무라도 직무평가상 가치가 같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 원칙을 묻는 선지에서는 비교 대상이 같은 일인지, 서로 다르지만 가치가 같은 일인지 먼저 확인한다. 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고 후자는 상응가치 원칙이다.

암기 포인트

동일노동은 같은 일, 상응가치는 다른 일의 같은 가치이다.

NoteBase